

화태 이주 조선인에 관한 신문기사의 정량적 분석

이준영*

geunalihu@hanyang.ac.kr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3.2 기사 취재 방식 |
| 2. 화태 이주 조선인 관련 신문 데이터베이스 현황 | 4. 화태와 조선인에 관한 기사의 정량적 분석 |
| 3. 화태와 조선인에 관한 기사를 발행한 신문 | 4.1 지역 구분에 따른 분석 |
| 3.1 신문별 화태와 조선인 관련 기사 게재 현황 | 4.2 주제 구분에 따른 분석 |
| | 5. 마치며 |

主題語: 화태(Hwatae), 가라후토(Karafuto), 사할린한인(Sakhalin Korean), 신문기사(newspaper), 데이터베이스(database)

1. 들어가며

2020년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사할린동포법)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정되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사할린동포¹⁾를 위한 지원 사업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1989년 대한적십자사와 일본적십자사가 공동으로 ‘사할린한인지원 공동사업체(在サハリシ韓国人支援共同事業体)’(이하 공동사업체)를 발족하고 전개한 사할린한인 지원 사업 이후로 32년만이다. 사할린동포법은 그동안 공동사업체가 주도한 지원사업 내용을 어느 정도 계승하면서 법제화한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에 의한 사할린동포에 대한 지원이 앞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시사한다. 특히 사할린동포의 명예 회복에 필요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것을 사할린동포법의 ‘제3조 국가의 책무’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할린동

* 한양대학교 일본언어문화학과 ‘지역문화 창출과 인문활동방법론 구축을 위한 일본학 교육연구팀’ PD연구원

- 1) 사할린동포란 사할린동포법에 의하면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이라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신문기사 자료에서는 일본이 사할린 남부 지역을 통치했을 무렵(1905~1945) 해당 지역에 이주한 한반도 출신자를 일반적으로 ‘조선인’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본이 사할린 남부를 통치했던 무렵 화태에 이주한 한반도 출신자를 ‘화태 이주 조선인’이라고 표기한다. 단, 제도 및 법 용어에서 언급될 경우 원전의 표기를 따른다.

포법 시행령에서는 기념사업을 구체적으로 사할린동포 관련 연구·학술활동의 지원 사업 및 사할린동포의 역사 및 문화의 보존 사업 등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사할린동포법의 시행을 비롯한 기념사업 추진이라는 측면에서, 화태²⁾ 이주 조선인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검토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기존의 사할린동포 관련 연구·학술활동은 공동사업체가 주도한 ‘사할린한인 1세’에 대한 영주 귀국사업 이후 활성화되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중 화태 이주 조선인에 관한 연구나 정책은 일본이 조선인 노동자를 강제동원한 시기에 초점이 맞춰진 경향이 있다.³⁾ 기존 화태 이주 조선인 연구는 ‘사할린한인 1세’의 영주귀국 문제를 다룸으로써 전쟁피해·보상연구의 측면에 대단히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강제동원기 이전에 일본령이었던 화태로 이주한 조선인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원인은 사할린 지역에 대한 무관심에 있다기보다 화태에 관한 역사적 자료가 부족하며, 역사적 자료가 존재하더라도 그 접근이 어렵다는 것에 있다. 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할린으로 이주한 조선인에 관한 연구는, 국내의 경우 이재혁(2011), 정하미(2013a; 2013b), 이준영(2018; 2019), 일본의 경우 미키 마사후미(三木理史, 2003), 나카야마 다이쇼(中山大將, 2015) 등이 수행한 바 있다.

이재혁(2011)은 조선 내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자 조선인 노동자들이 러시아나 일본에 이주한 상황을 근거로 들며 1920-1930년대 화태 조선인 이주상을 나타내고 있다.⁴⁾ 정하미(2013a; 2013b)는 실증적인 자료를 통한 화태 이주 조선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본이 작성한 역사적 자료를 사례로 조선인의 화태 이주 사례를 소개하였으며, 조선인이 1920년대에 화태로의 이주가 활발했던 것에 주목하여 이에 대해 고찰하였다.⁵⁾ 이준영(2018; 2019)은 1910년대에서 1920년대에 걸쳐 화태로 이주한 조선인 노동자와 작부의 활동에 대하여 분석하였다.⁶⁾

2) 본고에서 주로 활용하는 신문 자료에서는 일본이 통치한 사할린 남부 지역을 ‘화태(樺太)’라고 지칭하였으므로 본고에서도 이를 따라 표기한다. 그리고 해당 시기에 러시아가 통치했던 사할린 북부 지역과 일본이 통치했던 사할린 남부 지역을 구분하여 서술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각각 ‘북화태’, ‘남화태’라고 표기한다. 단, 인용 자료에서 다르게 언급될 경우 원전의 표기를 따른다.

3) 예를 들면 정근식·염미경(2000)은 ‘사할린한인’을 1930년대 이후 1990년경까지 사할린에 살았던 한인이라고 정의하며, 김민영(2000)은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에 의해 강제연행되어 일본의 패전 후 사할린에 잔류한 한인을 ‘사할린한인’으로 보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정의한 ‘사할린한인’은 일제말기 대부분 징용노동자로 사할린 이주하고, 종전 후 일정부의 일본귀환 불허 및 일방적 국적박탈조치(1952년)로 사할린에 잔류한 자라고 정하고 있다.

정근식·염미경(2000)『디아스포라, 귀환, 출현적 정체성 - 사할린 한인의 역사적 경험』『재외한인연구』9(1), 재외한인학회, pp.237-380; 김민영(2000)『사할린 한인의 이주와 노동 1939-1945』『국제지역연구』4(1), 국제지역학회, pp.23-52; 보건복지부(2018)『2018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지원 사업 안내』보건복지부, p.1

4) 이재혁(2011)『일제강점기 사할린의 한국인 이주』『한국 시베리아연구』15(1), 한국-시베리아센터, p.105

5) 정하미(2013a)『‘사할린연구’의 전개와 ‘樺太’자료 -인구조사와 가라후토청 경찰자료를 중심으로-』『일본학보』94, 한국일본학회.; 정하미(2013b)『일제강점기 조선인의 가라후토 이주 -1920년대를 중심으로-』『일본학보』95, 한국일본학회

미키(2003)는 화태청경찰부(樺太庁警察部)가 작성한 자료를 토대로 화태 이주 조선인과 사회 형성의 단서를 소개하고 있으며⁷⁾, 나카야마(2015)는 가라후토에서 활동한 박병일이라는 역사적 인물을 사례로 들어 가라후토 내 조선인 사회와 일본인 사회의 공존에 대하여 고찰하였다.⁸⁾ 일련의 선행연구는 대체로 화태청(樺太庁)이 작성한 행정자료나 경찰자료⁹⁾를 원천으로 활용하며 이루어져 왔다. 특히 가장 많이 활용된 화태청경찰부(1927)의 보고서는 작성 당시의 특정 시기만을 다루며, 조선인 노동자와 관련한 ‘범죄’와 같은 편향적인 서술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할린 내 조선인 사회상을 폭넓게 고찰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본고에서는 그 동안 관련 사료 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화태 관련 신문 기사를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화태 이주 조선인에 관한 후속 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삼는다. 이러한 작업은 앞으로 화태 이주 조선인 연구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는 기초 작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화태 이주 조선인 관련 신문 데이터베이스 현황

그동안 화태 이주 조선인과 관련한 연구는 주로 강제이주기에 주목했기 때문에 1939년 이전에 화태로 이주하였던 조선인의 존재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리고 주로 당시 일본 정부기관이 작성한 자료가 활용되어 화태 이주 조선인에 대한 한정된 정보만이 반영되어 있다. 이처럼 접근 가능한 역사적 자료가 부족하거나, 존재하더라도 공개되지 않는 등의 실정이 화태 이주 조선인에 대한 연구 수행의 한계성으로 작용하였다. 본고에서는 그러한 자료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의 신문자료를 조사한 결과를 시기별로 정량적 분석을 수행하고, 당시 조선 내 사할린 이주 조선인에 대한 인식과 변화를 고찰한다.

사할린 이주 조선인 관련 선행연구 중 신문 기사를 활용한 것은 대표적으로 정혜경(2007)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국내에서 발행된 신문이나 잡지를 바탕으로 화태에 대한 인식을

6) 이준영(2018)「1910-20년대 조선인의 가라후토 이주와 인식」『일본근대학연구』59, 한국일본근대학회; 이준영(2019)「1920년대 가라후토(사할린) 내 조선인 인구 통제를 위한 작부 제재」『일본어문학』84, 일본어문학회

7) 三木理史(2003)「戦間期樺太における朝鮮人社会の形成」『社会経済史学』65(8), 社会経済史学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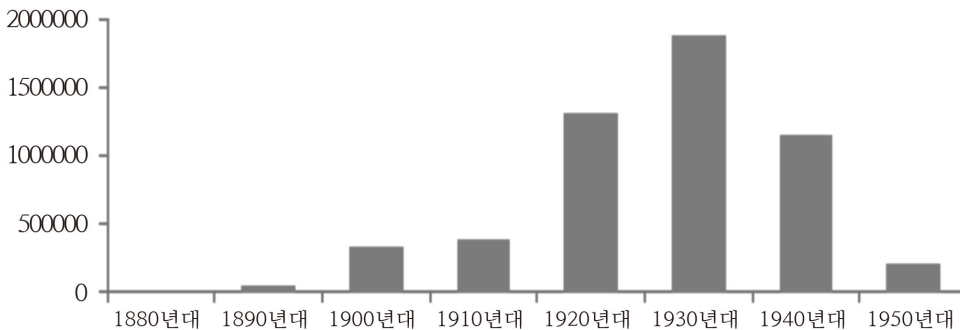
8) 中山大將(2015)「サハリン韓人の下からの共生の模索」『境界研究』5, 北海道大学スラブ・ユーラシア研究センター

9) 長澤秀(2006)『戦前朝鮮人関係警察資料集』 - , 緑蔭書房; 樺太庁警察部(1927)『樺太在留朝鮮人一班』樺太庁警察部

고찰하였다. 이는 화태 연구에 있어 신문 자료의 사료적 가치를 증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신문 기사의 데이터베이스가 아직 체계적이지 않았던 가운데, 화태에 관련한 기사 248개 목록을 소개하였고 그중에서 29건의 조선인 이주 및 사회적 활동과 관련한 기사가 있었다는 것을 밝혔다.¹⁰⁾ 하지만 최근 신문자료 데이터베이스가 체계를 갖추에 따라 화태에 관한 기사가 총 3,949건으로 새롭게 확인되었다.

국내에서 발행되었던 고신문의 열람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https://www.nl.go.kr/newspaper>)’가 98종 신문의 기사를 공개하고 있다.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에서 공개하고 있지 않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각 신문사의 독립된 데이터베이스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국립중앙도서관은 2013년부터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지원으로 ‘귀중본 고신문 DB 구축사업’을 통해 고신문 자료를 인터넷으로 공개하다가 2016년에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로 개편하여 공개를 이어가고 있다. 98종 신문의 5,358,956개¹¹⁾ 기사나 광고를 목록화하였고 본문 내용을 지면 이미지로 공개하고 있다. 키워드 검색 기능을 통해 기사 제목 및 태그에 따라 검색 결과를 출력할 수 있다.¹²⁾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가 공개하고 있는 신문 기사 및 광고 수는 <도표 1>과 같다.

<도표1>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의 시기별 소장 기사 수



1880년대 3,216건(0.06%), 1890년대 59,411건(1.11%), 1900년대 343,729건(6.51%), 1910년대 394,885건(7.37%), 1920년대 1,317,236건(24.58%), 1930년대 1,881,466건(35.11%), 1940년대

10) 정혜경(2007)이 신문 기사를 구분한 바에 따르면 “조선인 관련 기사”는 15건, “조선인 동정”은 14건으로, 조선인의 사할린 이주나 사회적 활동에 관한 기사는 총 29건이었다.

정혜경(2007)『1920~30년대 식민지 조선 사회의 화태(樵太) 인식』『식민지 동화정책과 협력 그리고 인식』두리미디어, pp.263-2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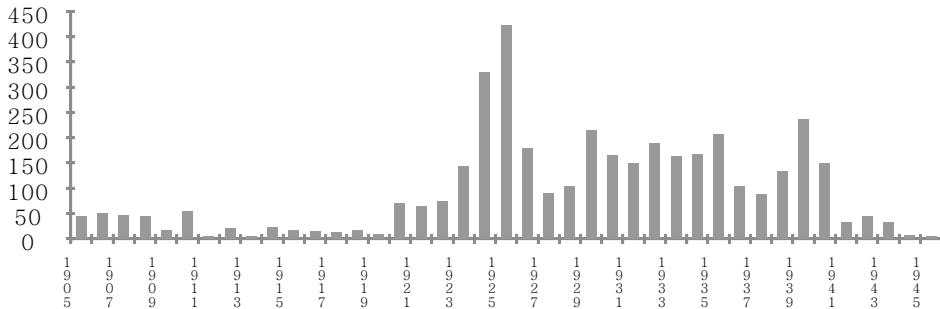
11)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에 관한 서술은 2020년 1월 3일 기준 조사에 따름.

12) 태그에는 해당 기사와 관련한 인물, 단체, 사건, 장소가 입력되어 있으므로 키워드 검색을 통한 포괄적인 자료가 가능하다.

1,152,166건(21.5%), 1950년대 206,817건(3.86%)으로 1920~1940년대에 신문 기사가 활발히 게재되었다.¹³⁾ 특히 1920년대부터 1930년대에 전체 공개 신문 기사 중 다수가 집중적으로 발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1920년대부터 시작된 이른바 일제의 ‘문화통치’로 인하여 신문 발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가 1940년대에는 전시로 인한 언론 통제로 인하여 기사 발행 수가 감소한 것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은 신문 중 『東亞日報』의 경우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newslibrary.naver.com)’에서, 『朝鮮日報』의 경우 조선일보사 홈페이지의 ‘지면보기’(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index_new.jsp)’에서 기사를 열람 및 수집하였다.¹⁴⁾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에서 ‘화태’로 키워드 통합검색을 한 결과 2,471건의 기사와 『東亞日報』의 검색 결과 1,218건, 『朝鮮日報』의 검색 결과 259건을 모두 합쳐 총 3,949건의 기사가 집계되었다. 이 검색 결과 수를 종합하여 연도별로 집계해보면 <도표2>와 같다.¹⁵⁾

<도표2> ‘화태’로 키워드 검색 결과로 출력된 기사 수(1905.9.5~1945.8.15.)



앞서 <도표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데이터베이스에 탑재되어 있는 신문기사는 1930년대에 가장 많았으나, ‘화태’로 키워드 검색할 경우 근소하게나마 1920년대의 기사 수가 더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장에서 후술하겠으나 1920년부터 1925년까지 일본이 북화태까지 통치하면서 해당 지역에 대한 관심이 모여짐에 따라 관련 기사의 수도 증가한 것이다. 그리고 특히 1925년에는 일본이 북화태를 러시아에 양도하고 철병시키는 과정에서 다수의 조선인이

13) 괄호 안의 비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

14) 『東亞日報』와 『朝鮮日報』는 1920년에 창간하고, 1940년에 폐간하였다. 두 신문은 해방 후 1945년에 발행을 재개하였다. 『東亞日報』와 『朝鮮日報』는 2020년에 창간으로부터 100주년 기념으로 신문 기사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공개하기 시작하였다.

15) 검색을 위한 키워드로 ‘사할린’, ‘가라후토’, 그 외 사할린 내 행정 지청(支庁) 및 군정촌(郡町村)을 사용하였다.

남화태로 이주하게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감안하여 북화태로 이주한 조선인에 관한 기사도 포함하여 다룬다.

3. 화태와 조선인에 관한 기사를 발행한 신문

본 장에서는 앞서 키워드 검색으로 얻은 신문기사 중에서 조선인의 이주나 사회적 활동에 관한 신문 기사를 선별하였다. 그리고 선별한 기사와 발행한 신문의 성격에 대해 고찰하고, 기사별로 주제를 구분하여 정량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3.1 신문별 화태와 조선인 관련 기사 게재 현황

조선인의 화태 이주 및 사회적 활동을 다룬 기사를 선별한 결과 <도표3>과 같이 12종의 신문에서 162개의 기사가 확인된다.

<도표3> 신문별 화태 이주 조선인 관련 기사 개수

신문명	釜山日報	朝鮮時報	京城日報	朝鮮新聞	每日申報	每日新報	國民新報	朝鮮日報	東亞日報	時代日報	中外日報	朝鮮中央日報	합계
개수	1	4	1	11	15	13	1	51	61	1	2	1	162

* 조간과 석간에 같은 기사를 중복으로 기재했을 경우에 기사수를 1개로 처리함.

또한 각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해제를 바탕으로 <도표4>와 같이 각 신문별 발행 기간과, 데이터베이스에서 공개중인 발행 기간을 시각적으로 나타냈다. 화태 이주 조선인에 관한 기사는 『每日申報』, 『東亞日報』, 『朝鮮日報』 순으로 다수 발행하고 있었다. 『每日申報』는 『大韓每日申報』가 조선총독부에 강제 매수되어 『京城日報』 산하에 통합되면서 1910년부터 개칭되어 발행되었다. 『京城日報』와 『每日申報』는 조선총독부의 기관지로서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1920년 무렵에 『朝鮮日報』와 『東亞日報』 등 민간지가 발행되기 시작하면서 『每日申報』의 영향력이 다소 약해졌지만, 1940년 민간지가 조선총독부의 언론 통제로 모두 폐간됨에 따라 다시 영향력을 회복하였다. 따라서 1940년대에 발행한 신문 기사 중 화태 이주를 하거나 화태에서 사회적 활동을 한 조선인에 관한 기사 수가 격감하였다. 그리고

<도표5> 신문별 화태 관련 조선인 기사 수(1920~1945)

기사는 전무하였다. 그러나 1925년 일본군을 사할린 북부 지역에서 철수하도록 하는 일소기본조약(日ソ基本條約)이 체결되면서 북화태를 둘러싼 조선인의 이주에 관한 기사가 다수 게재되기 시작했다. 일소기본조약에는 사할린 북부 지역에 대한 일본의 자원 개발 이권을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로 인해 조선인 노동자가 사할린 북부 지역에 다수 거주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이에 따라 1920년대 중반부터 사할린 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인의 동정을 다루는 기사 수가 증가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화태 내 조선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화태 거주 조선인 사회에 관한 소식이 기사로 소개되기 시작했다. 사할린 북부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던 조선인들 중에는 일소기본조약으로 일본군이 철군하면서 함께 화태나 조선 등으로 이주한 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1920년대 후반에는 화태 북부 지역에 제지업과 광업을 중심으로 한 신흥도시가 개발되었으며, 이에 일자리를 얻고자 이주한 조선인 노동자가 증가하였다.

1930년대 초반부터는 일본 전역의 불경기와 실업률 증가에 따라 조선인의 일본 본토 및 화태로의 도향이 통제되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만주 식민을 장려한 방침에 따라 조선 사회에서 화태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따라서 1930년대 초중반에 걸쳐 화태 이주 조선인에 관한 소식이 기사로 발행되는 수가 감소하였다. 1930년대 후반부터는 조선인 노동자를 화태로 ‘알선’, ‘모집’하는 내용을 담은 기사가 다수 게재되고 있었다. 1930년대 후반부터 1945년까지 걸쳐 화태에 이주한 조선인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알려진 가운데, 기사 자료를 활용한다면 자료 부족으로 인한 한계점을 다소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2 기사 취재 방식

먼 이역의 땅인 화태에서 거주하는 조선인들의 소식을 접하기란 거의 불가능했다. 따라서 기사를 통해 화태에 관한 소식을 보도함으로써 화태에 대한 의식이 조선인들에게 부여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신문사들은 어떤 방식으로 화태와 조선인에 관한 소식을 취재할 수 있었을까? 본 항에서는 신문 자료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는 측면에서 기사의 취재 상황에 대해 고찰한다.

기사를 발행한 신문사나 시기, 기사 유형 등에 따라 기사 내용의 출처를 표기하는 방식이 달랐지만, 기사에 정보의 출처나 취재 방식을 밝힘으로써 독자들에게 기사 내용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었다. 앞서 선별한 기사들의 구체적인 기사 취재 방식을 검토한 결과 <도표 6>과 같이 집계하였다. 취재 방식을 ‘인터뷰’로 설정한 기사는 특정 인물의 발언이 기사 내용에 인용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화태에서 거주하다가 조선에 방문한 인물의 인터뷰가 게재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사실적정보’는 조선총독부나 경찰 등 관공서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재구성한 기사로 정하여 집계하였다. 또한 논설문이나 보고문의 형식의 기사일 경우에는 취재 방식을 ‘해설’로 정하여 집계하였다. 그리고 기사에 ‘通報’, ‘電’, ‘特電’, ‘電話’ 등이 병기된 것과 신문사에 편지나 엽서로 제보하는 경우를 ‘통신’으로 정하여 집계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사 내용만으로 취재 방법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명’으로 정하였다.

<도표6> 취재 방식에 따른 기사 수

(단위: 건, %,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구분	인터뷰	사실적정보	해설	통신	불명	합계
건수	5	16	32	77	32	162
비율	3.1	9.9	19.8	47.5	19.8	100

취재 방식 중 출처가 제일 명확한 것은 ‘통신’이었다. ‘통신’은 구체적으로 전신 및 전화(53건), 우편(24건)으로 구분된다. 우편의 경우 화태에서 신문사로 보내진 의연금에 관한 기사가 대부분이었다. 의연금에 관한 기사에는 의연금을 보낸 인물의 주소 및 소속 등이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기사들은 화태에서 사업적으로 성공한 조선인의 존재가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알려질 수 있었다.

전신 및 전화로 취재된 기사의 출처는 크게 조선(21건), 화태(16건), 일본본토(12건), 중국 혹은 러시아(4건)로 나뉜다. 화태 이주 조선인에 관한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화태에서 발신된 전신 및 전화의 건수보다 조선이나 일본본토에서 발신된 경우가 더 많은 것이 확인된다.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조선 내 신문사가 화태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고 보기보다는 당시 통신 인프라가 부족했던 상황의 영향이 크다.

조선과 화태를 직접 잇는 통신 인프라에 관해서 아직 확실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1926년 조선과 화태를 잇는 전신의 시험통화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1927년에 경성무선전신국(京城無線電信局)이 준공된 이후로 조선과 화태를 직접 잇는 전신이 상용화된 것으로 보인다.¹⁸⁾ 이 무렵과 동시에 조선 발행 신문에서 화태 관련 기사의 게재 빈도도 높아지는 경향은 있지만, 화태와 조선인에 관한 소식이 전신으로 취재된 것은 대부분 도쿄나 홋카이도, 혹은 블라디보스토크 등에서 발신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화태와 조선은 장거리라는 점과 혹한이나 우천 등으로 인한 고장이 잦았다는 점으로부터 화태의 소식이 조선에 원활히 전해지지 못한

18) 「十五年度 電信擴張內容」『朝鮮日報』1926년 5월 8일; 「東亞連絡無電」『東亞日報』1926년 7월 1일; 「竣成 된無電局」『東亞日報』1927년 3월 25일

사정도 있었다.

게다가 1930년대에 조선 내 신문 독자로부터 화태 소식에 관한 수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사가 충분히 대처하지 못한 사정도 확인된다. 『東亞日報』의 기사에서 확인되는 사례에 의하면, 화태 시루토루(知取, 현재 마카로프)에서 거주하는 조선인 중 『東亞日報』를 통해 화태에 거주하는 조선인 동정을 조선에 알리길 바라고 동아일보사의 통신원을 화태에 파견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東亞日報』는 통신원 파견 요구에 대해 “通信員을두릿스면 조흔것은本社에 서도 希望하는바입니다 그러나 適任者가 업슴으로 恒時遺憾으로 생각코잇습니다”¹⁹⁾라고 답하였다. 이 사례에서 엿볼 수 있듯이 1927년부터 조선과 화태를 잇는 통신선이 구비되더라도 기사 취재를 위한 인력까지 배치하지 못했던 상황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930년대에 걸쳐 조선에서 가장 많은 신문 기사가 발행되었지만, 그중 화태 관련 기사 수가 적은 원인을 화태 지역에 대한 무관심으로만 해석하기에는 다소 조심스럽다. 『東亞日報』는 당시 조선에서 화태 관련 기사를 가장 많이 게재하며 화태에 대한 관심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1930년까지도 국내 신문사가 직접 화태를 취재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엿볼 수 있다.

4. 화태와 조선인에 관한 기사의 정량적 분석

본 장에서는 화태로 이주한 조선인과 사회적 활동에 관한 기사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각 기사가 다루고 있는 지역과 주제를 각각 구분하고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본고에서 활용하고 있는 신문 기사 데이터베이스는 기사마다 핵심적인 주제어가 태그 입력되어 있지만 원문 내용은 텍스트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앞서 선별한 162건의 기사 내용에서 지역 및 주제 키워드를 따로 추출하는 작업을 거쳐 분석을 시도하였다.

4.1 지역 구분에 따른 분석

일본이 화태를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화태 내 행정 지역명에 관한 편제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소 변동이 있었다.²⁰⁾ 본 항에서는 1929년 개정된 「樺太町村制」를 근거로 한 지역명을 기준으로 기사를 구분하여 <도표7>과 같이 집계하였다.

19) 「本社關係一束」『東亞日報』1930년 11월 9일

20) 화태의 지방행정 제도를 규정하는 법률인 「樺太ノ郡町村編制ニ関スル件」이 1915년에 제정된 후, 1922년 「樺太町村制」가 새롭게 제정되었고, 1929년에 개정, 1943년 폐지되는 과정을 거쳤다.

<도표7> 신문기사가 다루는 지역별 분포

(단위: 건, %,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지역 구분	南樺太										北樺太		
	豊原郡	大泊郡	榮濱郡	富内郡	本斗郡	鵜城郡	名好郡	元泊郡	敷香郡	구분없음	亞港	奧哈	구분없음
건수	9	5	7	1	3	1	22	13	7	73	8	2	14
비율	5.5	3.0	4.2	0.6	1.8	0.6	13.3	7.9	4.2	44.2	4.8	1.2	8.5

<도표7>을 보면 조선인 관련 기사가 어느 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보다 여러 지역으로 두루 분포되어 있다. 이중에서 비교적 러시아 국경과 가까운 화태 북부지역에 조선인 관련 기사 수가 더 많은 것이 확인된다. 구체적으로는 1920년대 중반부터 나요시군(名好郡)의 에스토루정(恵須取町, 현재 우글레고르스크)과 모토도마리군(元泊郡)의 시루토루정(知取町, 현재 마카로프)에서 활동한 조선인 관련 기사가 다수 발행되고 있었다. 에스토루정과 시루토루정의 조선인 인구 추이(1921년, 1925년, 1929년 12월 말 기준)를 살펴보면 에스토루정은 13명, 891명, 1,076명이고 시루토루정은 1명, 646명, 695명으로 급격히 수치가 증가하였다. 게다가 1929년 화태에서 이루어진 정의원(町議員) 선거에서 에스토루정에서 2명, 시루토루에서 1명의 조선인 정의원이 당선되었다.²¹⁾ 이 정의원 선거는 조선인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위 두 지역에 화태 조선인 인구가 집중되어 있었던 상황은 조선인 정의원이 당선하게 만드는 한 요인이 되었다. 그리고 화태청의 행정 중심지인 도요하라군(豊原郡)에 관한 조선인 기사는 도요하라정(豊原町, 현재 유즈노사할린스크)과 가와카미촌(川上村, 현재 시네고르스크)에 관한 내용이 확인된다. 도요하라군은 1907년부터 화태청(樺太庁)이 들어선 행정 중심 지역이었던 만큼 일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이었다. 하지만 조선인이 도요하라에 집단적으로 이주된 사례는 1917년 가와카미촌에 철도 부설과 탄광 개발을 위해 모집된 조선인 노동자들이었다.²²⁾ 한편 도요하라정의 조선인 인구는 많지 않았지만, 조선인 유력자가 사회적 활동을 시도한 공간이었²³⁾다. 1920년대 중반부터 화태 조선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화태 각 지역에 조선인들로 이루어진 호조 단체들이 다수 설립되었다. 특히 1930년 도요하라정에는 화태 조선인들로 이루어진 최대 규모의 호조 단체 ‘조선협회’가 설립되었다.²⁴⁾ ‘조선협회’의 구성원 중에는

21) 「樺太訪問記(19)」『東亞日報』1932년 11월 17일

22) 1917년 조선인 노동자들이 가와카미로 집단 이주한 사례에 관해서는, 이준영(2018)「1910-20년대 조선인의 가라후토 이주와 인식」『일본근대학연구』59, pp.359-362를 참고.

23) 「朝鮮協會幹部數名役員を辞す 辭職に關する聲明書も發表」『樺太日日新聞』1930년 11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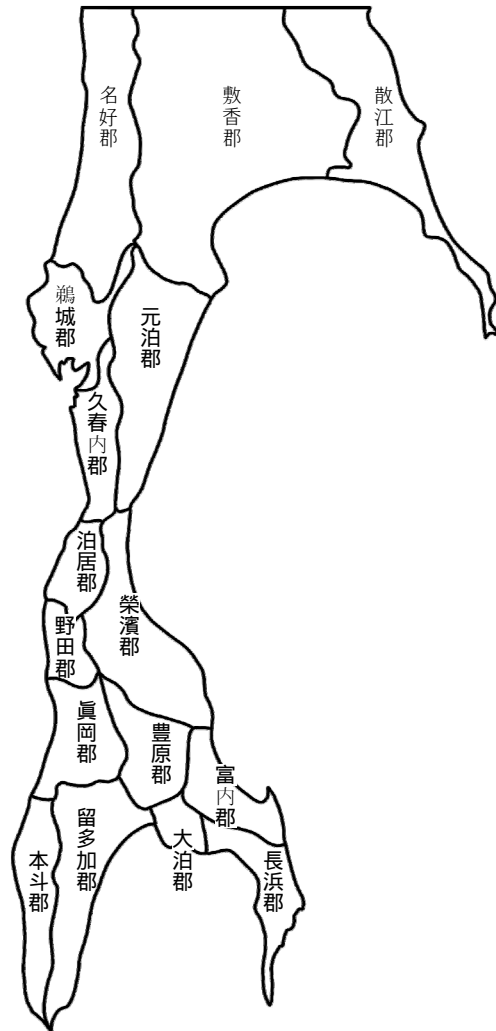
24) 「在島鮮人の大團結 朝鮮協會創立さる 會員の出席三百餘名で議論百出」『樺太日日新聞』1930년 8월 19

시루토루정이나 에스토루정의 정회의원이었던 이사웅과 이초남이라는 인물도 있었다. 화태 각 지역에서 조선인 사회를 대표하던 인물들이 화태의 행정 중심지인 도요하라에서 해당 협회를 설립함으로써 화태 내 조선인 사회를 대표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4개월만에 일본 경찰에 의해 해산되었다.

북화태 관련 기사의 경우 일본이 화태 전도를 통치했던 1920년부터 1925년에 걸친 시기에 아항(亜港, 알렉산드로프스크)에 관련한 기사가 8건이 발행되었다. 그리고 1925년 북화태에 주둔하던 일본군이 철군하고부터는, 북화태 북단에 위치한 오하(奥哈)에 관련한 기사가 발행되었다. 1925년 일소기본조약 이후 일본이 북화태에 대한 자원개발권을 획득하고 다수의 일본인과 조선인 노동자들이 오하에서 조업을 하던 사정과 관련한 기사이다. 해당 기사에서는 러시아는 일본이 북화태에 이권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던 정황이 기사에서 확인된다.²⁶⁾

조선에서 발행된 신문에서 화태와 조선인 관련 기사에 지역이 ‘구분없음’으로 확인된 것은 전체 기사의 52.7%로 높은 수치이다. 이 수치로부터 조선에서는 화태를 바라볼 때 군정촌(郡町村)과 같은 각 지방의 지역성을 각각 인식했다기보다는 ‘화태’라고 하는 지리적 범위로 뭉뚱그려서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도표 8> 남화태 지명²⁵⁾



일; 「樺太に飢える 朝鮮人労働者 各地へ救済運動」『朝鮮新聞』1930년 12월 24일

25) 和楽路屋(1933)「樺太廳全圖」『最新大日本県別地図』和楽路屋 중 군(郡)만 구분하여 재작성하였음.

26) 「『朝鮮人에對한壓迫 갈수록甚해질뿐 하바롭스크에선十餘名銃殺』蘇聯을脫出한金某의目擊談」『朝鮮日報』1938년 3월 28일; 「『繼續되는蘇聯의暴舉 朝鮮人十餘名銃殺 재주동포의불안은날이갈수록심각 既得權益까지도憂慮할狀態』『每日申報』1938년 4월 1일; 「『年内歸還困難 北樺太石油社員』『東亞日報』1938년 12월 13일; 「『北樺太石油社員은 年内歸還困難視 蘇聯의態度가豹變』『每日新報』1938년 12월 13일

4.2 주제 구분에 따른 분석

1920년부터 1945년까지 발행된 신문 기사가 다루고 있는 세부 구분에 대한 통계는 <도표 8>와 같다. 본고에서 다루는 기사의 출처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사별 면종 구분에 따라 선별한 기사에 반영할 경우 ‘사회’, ‘정치’, ‘정치사회’, ‘경제 및 산업’, ‘생활문화’ 등으로 제한적이며, 이 기준을 그대로 따를 경우 정량적 분석이 불가능하므로 별도로 세부 주제를 설정하여 기사 수를 집계하였다.²⁷⁾

<도표9> 세부 주제별 기사 분포

(단위: 건,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구분	동정	이주	정책	범죄 사고	재해	의연금	통계	미담	기타	합계
건수	24	9	27	32	9	28	11	7	15	162
비율	14.8	5.6	16.7	19.8	5.6	17.3	6.7	4.3	9.3	100

각 기사 구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동정’은 화태 내 조선인의 거주 상황이나 집회활동 등과 같은 사회적 활동을 다룬 기사를 포함하고 있다. 24건의 ‘동정’ 기사 중 화태에서 사회적으로 명망을 얻은 조선인이나 조선인 단체의 소식을 포함한 기사가 1920년대 중반부터 1930년대 초반에 걸쳐 8건이 집중적으로 게재되었다. 그밖에 1920년부터 1945년에 걸쳐 조선인 노동자 상황을 알리는 기사가 7건, 북화태 거주 조선인에 관한 기사가 4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주’로 구분한 기사에서는 특정 인물의 이주보다 단체적 이주 사례를 알려준다. 여기에 더불어 ‘정책’ 기사 27건 모두 조선인의 화태 이주에 관한 정책 소개나 논설을 다루고 있었다. ‘이주’와 ‘정책’은 모두 조선인의 이주에 관한 기사가 포함되지만, 다음 항에서 다루는 바와 같이 시기별로 화태 이주의 성격이 변화하기 때문에 구분하였다. ‘의연금’은 조선이나 만주에서 일어난 자연 재해로 생긴 이재민에 대해 화태 거주 조선인이 의연금을 보낸 것과 관련한 기사이다. 대부분 의연금을 보낸 인물의 주소나 소속, 성명이 나열되어 있는 형식의 기사이다. ‘범죄사고’는 조선인이 등장하는 범죄나 사고에 관한 기사이다. 기사에서 ‘인육상’이라는 표현으로 대표되는 인신매매 문제가 11건,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고용주의 대우 문제가 4건, 조선

27) 데이터베이스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제 기준으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다.

구분	사회	정치	정치사회	경제및산업	생활문화	기타	합계
수	131	10	10	6	5	1	162

인의 항일활동이나 사상운동에 관한 기사가 14건, 그 외가 3건으로 크게 구분된다. ‘재해’는 화태에서 일어난 자연재해를 다룬 기사이다. 9건 모두 화재로 인한 조선인들의 피해 상황을 알리고 있다. 재해에 따른 조선인의 사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동정’에 포함시킬 수도 있지만, 자연재해는 사회현상의 규칙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따로 집계하였다. ‘통계’는 화태 내 조선인 인구수가 기사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집계하였다. ‘미담’은 표면적으로 화태에서 거주하는 조선인 사회적 활약에 관해서 다루지만, 일본의 국가총동원법(国家総動員法)과 언론 통제에 따른 시대적 상황이 반영된 기사이다. ‘기타’는 흥미 본위로 다루어진 기사 등 위 구분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기사를 집계하였다.

<도표8>에서 기사의 주제 구분에 따른 수치로부터 조선에서 화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 특히 조선에서 발행된 신문 기사 중에서 이주에 관한 기사(‘이주’, ‘정책’)의 비중이 큰 것으로부터 화태 이주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았던 것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화태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인 개인이나 단체가 조선이나 만주에 의연금을 신문사에 보낸 사례도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의연금’으로 구분된 기사는 조선인이 화태에서 조선으로 의연금을 보낸 사례라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화태 이주 조선인의 동정에 관한 기사라고도 볼 수 있다. ‘의연금’ 기사에서는 의연금의 금액과 송금자의 성명, 주소, 소속 등이 병기되어 있어서 화태에 거주하고 있던 조선인의 실체가 간접적으로나마 엿보인다. 또한 ‘조선인구제 단체소(朝鮮人救濟團體所)’²⁸⁾, ‘시루토루친목회(知取親睦會)’와 ‘시루토루청년회(知取青年會)’²⁹⁾, ‘조선인교풍회(朝鮮人矯風會)’³⁰⁾, ‘조선인친목회(朝鮮人親睦會)’³¹⁾ 등 화태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조선인 단체가 소개됨으로써 화태 내 조선인 사회의 존재를 알리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또한 ‘의연금’ 기사 중에는 ‘해외동포’와의 유대감과 ‘민족애’에 관한 논설을 함께 언급하는 사례가 있다. 조선에서 화태 지역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시기에 화태에서 조선에서 일어난 수재에 대한 의연금을 보내온 것이다. 『東亞日報』에서는 “화태도란 엇더한 섬인가 아마그것을 알아는이도드물겠지마는 거기도우리동포(조선민족)이라는 정다운 일흠을가진동포가게서서 안에잇는 동포를게각하시는줄을 알때에 무엇인지모르는 그화태도도 그리워진다 (중략) 우리는화태도人동포의 본을바다 사랑하기 공부를하자 『민족애』의 공부를하

28) 「饑饉救濟金品」『東亞日報』1925년 4월 23일

29) 「樸太在留勞働同胞 血誠잇는同情金 관북리재동포를위하야 【分錢모아百卅六圓五十錢】」『東亞日報』1928년 11월 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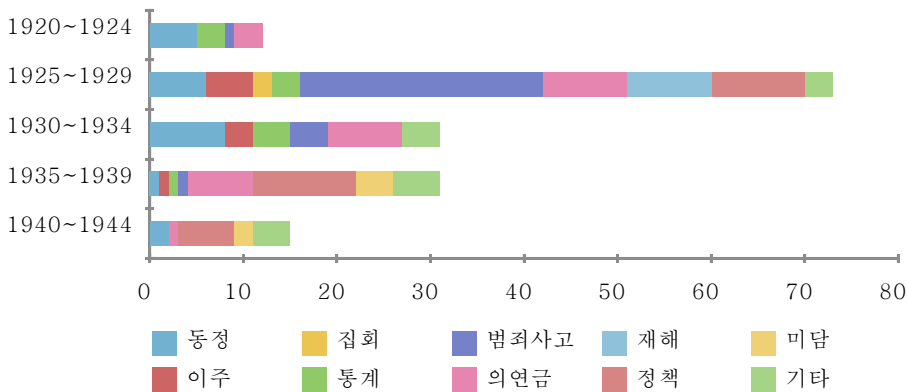
30) 「關北水害救濟 同情金決算 一月以後自進同情金」『東亞日報』1929년 11월 14일; 「決算後에接收한 在滿同胞慰護金品」『東亞日報』1932년 4월 7일

31) 「旱害救濟義捐」『朝鮮日報』1939년 11월 22일; 「旱害救濟義捐」『朝鮮日報』1932년 2월 4일

자³²⁾라고 기사를 게재하여 화태 이주 조선인 ‘동포’의 존재를 “민족애” 가치를 들며 논설하고 있었다. 조선에서 화태라는 지역이 어디인지 잘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화태 이주 조선인에 대한 민족적 연대의식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위와 같이 세부 주제로 구분한 정량적 분석만으로는 화태로 이주하는 조선인의 동향 변화나, 화태를 둘러싼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도표 8>에서 기사 주제 구분에 따라 분포된 수치를 시계열적으로 조망함으로써 그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도표10> 세부주제로 구분한 기사의 시기별 분포



1920년대 초반까지는 아직 화태 지역이 조선에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 반영되어 화태와 조선인에 관한 신문 기사는 1920년부터 1924년까지 제일 적게 발행되었다. 그러다가 1920년대 중반부터 화태의 조선인 인구가 급증한 상황과 맞물려 1925년에서 1929년에 관련 기사의 발행 수가 증가한 것이 확인된다. 특히 1925년부터 1929년에는 ‘범죄사고’ 기사가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920년부터 5년 동안 일본이 북화태를 통치하다가 1925년에 북화태를 러시아에 반환하면서 북화태에 거주하던 조선인이 상당수 남화태로 이주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화태청경찰부(1927)는 당시 북화태에서 남하하는 조선인이 급증함에 따라 조선인 치안 통제가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면서 조선인의 화태 이주를 통제하는 의지를 보이기도 하였다. 게다가 화태로 이주한 조선인 중에서는 조선인의 항일활동과 사상운동의 거점으로 한 정황도 ‘범죄사고’ 기사에서 14건 확인되었다.

32) 「민족애의 빛 하나 화태도게신동포의정성」『東亞日報』1923년 12월 28일

‘재해’는 1929년 6월에 에스토루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화재와 조선인의 피해를 다룬 기사 9건이 확인되었다. 1930년대부터는 ‘범죄사고’에 관한 기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재난’ 기사도 더 이상 등장하지 않게 되었다.

‘정책’의 경우 1925년부터 1929년, 1935년부터 1944년까지로 집중되어 있다. 이 모두 화태나 일본의 정세 변화에 따른 현상이다. 1920년부터 1925년까지 일본군이 북화태를 점령하다가 1925년 철군하면서 북화태에 거주하던 조선인들도 함께 화태나 조선 등지에 이주하게 되었다. 한편 러시아는 북화태 개발을 위해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이주 정책을 전개하였다. 이에 1925년부터 1929년에 발행된 기사 중에는 북화태로의 조선인 이주 정책에 관한 기사가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일본이 1938년 시행한 국가총동원법, 그리고 1940년에 『朝鮮日報』와 『東亞日報』 같은 유력한 민간신문이 조선총독부에 의해 강제 폐간되고 『每日新報』와 같은 조선총독부 기관지가 발행을 이어간 당시 조선 언론 상황에 의해 1938년부터 화태와 조선인에 관한 기사에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조선에서 화태로 조선인 노동자를 공급시키는 정책에 관한 기사는 1938년부터 1944년까지 걸쳐 17건이 확인되었다.

‘미담’으로 구분된 기사도 마찬가지로 1938년부터 1942년에 걸쳐 모두 집중되어 있으며, 같은 시기에 ‘동정’의 기사는 줄어든 양상이 나타난다. 또한 ‘미담’에 관한 기사가 줄어드는 것과 비례하듯 ‘범죄사고’ 기사는 1건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 ‘미담’에 관한 기사의 특징은 화태 이주 여성의 위문금 헌납이나 남성 노동자의 일효율에 대해 “예찬”하고 있다는 점으로, 화태에서 조선인의 사회적 활동을 소개하는 어조가 ‘미담’으로 변하는 것이 확인된다.³³⁾

5. 마치며

이상으로 국내에서 발행된 신문 데이터베이스에서 화태로 이주한 조선인에 관한 기사를 선별하여 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해보았다. 본고에서 활용한 신문기사 총 162건은 통계학적인 분석을 시도하기에 유의미한 수치라고 하기에 미흡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검토하지 않았던 화태 이주 조선인에 관한 신문 사료를 검토함으로써, 그 사료적 가치가 높다는 점을 밝혔기 때문에 본 연구는 무의미하지 않다. 이에 본고에서는 1920년대부터 1940년대에 화태와 조선인 관련 기사를 발행한 신문에 대한 서지적인 고찰을 하고 각 기사의 성격, 그리고

33) 「樺太居住の半島婦人の活動」『朝鮮日報』1938년 3월 2일; 「朝鮮勞働者を禮讃 今後多量に斡旋」『東亞日報』1940년 4월 10일; 「銃後奉公に感激 樺太있는半島勞務者들」『每日新報』1942년 9월 24일

시기에 따른 변화양상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다양한 도표를 활용하여 시각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조선에서 발행된 신문 중 화태에 관한 기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920년대 초반부터 조선에서는 화태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인의 존재를 인지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1923년 『東亞日報』에서 화태 거주 조선인에 대해 ‘우리동포’라고 하며 ‘민족애’를 강조한 기사가 대표적이다. 1920년대 중반부터는 화태 거주 조선인의 다양한 사회적 활동이 기사에서 소개되었지만, 1930년대 중반 이후부터 조선인에 관한 기사 발행 수가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1930년대에 들어서며 세계적인 불황으로 인해 화태에서도 실업률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화태 이주를 희망하는 조선인 노동자의 도향 의지도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화태 이주 조선인에 대한 신문 기사의 논조의 변화는 1938년부터 두드러진다. 1938년 일본이 시행한 ‘국가총동원법’으로 인해 조선인의 화태 이주 성격이 변화하였으며, 조선총독부의 언론 통제에 따라 ‘일선융화’, ‘내선일체’와 같은 어조로 화태 이주 조선인에 관한 소식이 게재되었기 때문이다. 1940년에는 조선총독부에 의해 『東亞日報』나 『朝鮮日報』와 같은 민족지가 모두 강제 폐간되는 등 조선에서 운영할 수 있던 신문사의 수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화태 이주 조선인에 관한 기사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본고에서는 2021년 1월 1일 사할린동포법이 시행된 것에 발맞춰 사할린한인과 관련한 역사적 자료의 검토를 시도하였다. 사할린한인에 관한 역사적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신문 자료에서 나타난 화태 이주 조선인 관련 기사를 통해 추후 사할린한인 관련 연구를 위한 기반 마련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여전히 사할린한인에 관한 역사적 자료는 부족하고 발굴이 계속 필요한 실정이다. 게다가 본고에서 수행한 정량적 분석은 각 기사가 다루는 사건이나 현상을 미시적으로 다루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후속 연구를 통해 일본 본토에서 발행되어 조선에 유통된 신문이나, 화태 및 홋카이도에서 발행된 신문 자료에서 화태 이주 조선인 관련 기사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본고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https://nl.go.kr/newspaper>(데이터베이스)
 동아디지털아카이브 <https://www.donga.com/archive/newslibrary>(데이터베이스)
 조선 뉴스 라이브러리100 <https://newslibrary.chosun.com>(데이터베이스)
 樺太庁警察部(1927)『樺太在留朝鮮人一斑』樺太庁警察部
 和楽路屋(1933)『樺太廳全圖』『最新大日本県別地図』和楽路屋
 김민영(2000)『사할린 한인의 이주와 노동 1939-1945』『국제지역연구』4(1), 국제지역학회, pp.23-52

- 보건복지부(2018)「2018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지원 사업 안내」보건복지부, p.1
- 정근식·염미경(2000)「디아스포라, 귀환, 출현적 정체성 - 사할린 한인의 역사적 경험」『재외한인연구』9(1), 재외한인학회, pp.237-380
- 이재혁(2011)「일제강점기 사할린의 한국인 이주」『한국 시베리아연구』15(1), 한국-시베리아센터, p.105
- 이준영(2018)「1910~20년대 조선인의 가라후토 이주와 인식」『일본근대학연구』59, 한국일본근대학회, pp.359-362
- _____(2019)「1920년대 가라후토(사할린) 내 조선인 인구 통제를 위한 작부 제재」『일본어문학』84, 일본어문학회, pp.567-594
- 정하미(2013)「‘사할린연구’의 전개와 ‘樺太’자료 —인구조사와 가라후토청 경찰자료를 중심으로—」『일본학보』94, 한국일본학회, pp.249-269
- _____(2013)「일제강점기 조선인의 가라후토 이주 —1920년대를 중심으로—」『일본학보』95, 한국일본학회, pp.269-281
- 정혜경(2007)「1920~30년대 식민지 조선 사회의 화태(樺太) 인식」『식민지 동화정책과 협력 그리고 인식』두리미디어, pp.263-293

논문투고일 : 2021년 03월 31일
심사개시일 : 2021년 04월 15일
1차 수정일 : 2021년 05월 07일
2차 수정일 : 2021년 05월 15일
게재확정일 : 2021년 05월 17일

<부록> 사할린한인에 관련한 국내 발행 신문기사 목록

발행시기	면	기사제목	주제	지역 분류	신문명
19210503	4	薩哈連亞港 朝鮮人勞働組合	동정	북화태	東亞日報
19211216	1	在外朝鮮人事情, 華太에 在한 朝鮮人の 生活狀態(上)	동정	도요하라군	毎日申報
19211217	1	在外朝鮮人事情, 華太에 在한 朝鮮人の 生活狀態(下)	동정	도요하라군	毎日申報
19220719	2	朝鮮外居住者の 京城土地所有數	통계	화태	毎日申報
19230330	2	貧苦와飢餓로 困難한北樺太의朝鮮同胞 薩哈連軍政署의通報	동정	북화태	毎日申報
19231227	2	西朝鮮水災에 北樺太에서同情 勸募委員會를본사에위탁	의연금	북화태	東亞日報
19231228	2	민족애의빛하나 화태도게신동포정성	의연금	화태	東亞日報
19240302	6	北樺太의戶口	통계	북화태	京城日報
19240601	1	一月以來 日本渡航의同胞	통계	화태	東亞日報
19240714	3	露領北樺太에서 洪德杓君의孤魂 그혈속두아회를 고국으로보낸다	동정	북화태	朝鮮日報
19240902	2	女子賣買의惡行 사람의피를빨아먹는자에게 끌려논 보라치는북화태도로 이미팔린녀자가네명	범죄사고	북화태	東亞日報
19240910	2	水旱災同情金 樺太사는 김운섭씨	의연금	도요하라군	東亞日報
19250120	1	軍隊와日本人	동정	북화태	朝鮮日報
19250315	3	內鮮融和中尉 樺太に派遣	기타	북화태	朝鮮新聞
19250316	2	자명중	기타	북화태	朝鮮日報
19250414	1	日本在住同胞 總數及職業別	통계	화태	朝鮮日報
19250422	2	樺太同胞의芳情 사백륙십여원을거두어 기근구제회에보내었다	의연금	화태	朝鮮日報
19250423	2	饑饉救濟金品	의연금	모토도마리군	東亞日報
19250423	1	八面鋒	의연금	화태	朝鮮日報
19250426	4	北樺太의引揚鮮人 元山上陸は四百十名	이동	북화태	朝鮮新聞
19250505	1	時評 눈물의結晶 分解와結合	의연금	화태	朝鮮日報
19250515	3	四百의鮮人 樺太를引揚ぐ 日本軍の撤退によつて 生命財産保障を失ひ	이동	북화태	朝鮮時報
19250517	2	強制歸還된 百五十名 북화태로부터 일본어용선으로귀환	이동	북화태	東亞日報
19250517	4	引揚の樺太移民 懷ろには一萬餘圓をも所持する 何れもソコソコに歸還	이동	북화태	朝鮮新聞
19250520	3	鮮人娼妓를 内地へも許す 結局實現?	통계	화태	朝鮮新聞
19250530	3	樺太三界に 出嫁ぐ鮮人娘子軍 釜山棧橋를徘徊中 不審と睨まれて取調べ中	범죄사고	오도마리군	朝鮮時報
19250530	7	樺太大泊の廓へ 身賣りに行く女七人 釜山で喰ひ止めらる	범죄사고	오도마리군	釜山日報
19250627	2	鮮人の樺太移住 總督府と樺太廳に折衝中	정책	화태	朝鮮新聞
19250627	1	朝鮮人 樺太移住如何를 總督府와樺太에서 現에折衝中	정책	화태	毎日申報
19250628	2	樺太에 朝鮮人移住를 연해주조선인이 계획중이라고	정책	화태	朝鮮日報

19250701	2	親女를판돈으로 阿片注射하는아비(三) 자기몸을팔 아어린동생구제 구원된딸을또작부로팔아서	범죄사고	화태	朝鮮日報
19250824	2	人肉市場3 外國方面輸出은 全部純實女 눈치를보아 웃음짓는그고생 팔려도조선안은상가위팔자	범죄사고	화태	時代日報
19251217	4	海外同胞들의 水害同情金 上海와東京과樺太에서 本 社를通하야또到着	의연금	화태	東亞日報
19260603	2	南樺太同胞 積雪下에勞働= 荒林을沃土化 공장과측 항공사에로동하며 주요사업으로토디를 개간 血汗으 로展開된新天地	동정	나요시군	朝鮮日報
19260705	2	九死一生으로 苦役監獄을脫出 달아난십여명은생사 가불명 남아있는이목숨도풍전등화 虎口에걸린樺太 勞働同胞	범죄사고	사카에하마군	朝鮮日報
19260705	2	流離乞食하며 廿日만에東京着 사자아가리는머서낫 스나 주머니에는돈까지떨어져	범죄사고	사카에하마군	朝鮮日報
19260705	1	八面鋒	범죄사고	화태	朝鮮日報
19260706	1	時評 人間의地獄 樺太의勞働	범죄사고	화태	朝鮮日報
19260929	2	樺太島在留同胞 三千五百餘名 산설고물도선북쪽나 라화태도 삼천여동포의애답은이역생활 異域에偶居 하는北國生活	동정	화태	東亞日報
19270121	1	樺太移民獎勵	정책	북화태	東亞日報
19270223	2	破滅의家庭을뒤두고 눈싸힌樺太島에 십년전에당하 든정양의경우 어머니는개가자기는녀직공 日裝美人 鄭今伊(二〇)哀話(一)	기타	화태	中外日報
19270315	2	北樺太開墾에 朝鮮人募集 로농정부에서북화태개간 에 조선농민이천호를모집한다 爲先二千戶募集計劃	정책	북화태	東亞日報
19270315	2	薩哈連에朝鮮人 二千戶移住募集 다섯해동안단일세 도면제하여주고 러비와개간비도대부하여주며모집 勞農露國의新事業	정책	북화태	朝鮮日報
19270316	3	抱主虐待로 娼妓窟得免 화태까지가서	범죄사고	화태	朝鮮日報
19270420	2	薩哈連開拓에 二萬同胞募集 로농로국의새로운계획 應募者八千餘名	정책	북화태	朝鮮日報
19270615	2	散在한渡航同胞 十四萬八千五百二名 남자가십일만 팔천륙백륙십구인 녀나가이만구천팔백서른네사람 昨年末現在...警務局調査	통계	화태	東亞日報
19270905	3	樺太로팔려가든娼妓 車中에서脫走! 인육상의손을교 묘히버서 종적을감추운창기김복이	범죄사고	도무나이군	朝鮮日報
19270909	2	樺太로팔리는七美人 釜山警察이發見 화태도로팔리 위기는미인을 부산경찰서에서인치취조중	범죄사고	모토도마리군	東亞日報
19271030	5	人肉商을膺懲한 六人警察에被訴 팔려나가는처녀를 구해내려고 노력하던것이원인되여피소	범죄사고	모토도마리군	東亞日報
19271202	2	密輸出嫌疑로 朝鮮人被殺 로국군경에게	동정	북화태	朝鮮日報
19280316	3	樺太島在住同胞 八千名死活問題 天然荒蕪地開拓도 不許可 形勢는漸次로險惡	집회	혼토군	東亞日報

19280316	3	大會를召集 積極策講究 녁극덕으로반대운동개시 委員廿二人選定	집회	혼토군	東亞日報
19280423	1	樺太移民計劃	정책	화태	東亞日報
19280429	1	普通教育에移民思想鼓吹	정책	화태	東亞日報
19280503	2	四千里異域에서 樺太同胞도望哭 전창유씨의술선으 로서 故國江山바라보며	동정	오도마리군	朝鮮日報
19280505	2	樺太在住八千同胞 荒蕪地開拓에着手 표박의걸음은 화태도에까지이르러 팔천동포가모이어개척사업에 착수 漂白生活에서住接에	동정	화태	東亞日報
19280812	3	御大典을機會に 恐るべき大陰謀 上海秘密結社の巨 魁 窃かに樺太より入り込む	범죄사고	화태	朝鮮時報
19280814	2	官公署爆破計劃으로日本에三青年潛入 어대던을기 회하야대관을○○하고광공서폭과할목덕으로일본에 잠입 上海『韓人青年會』員	범죄사고	화태	東亞日報
19280814	2	警視廳緊張 逮捕코저活動 화태도를거처들어가활동 系統은純共產主義	범죄사고	화태	東亞日報
19280831	2	沿海州와樺太經由 變裝하고日本潛入 어대던을압 두고비밀계획 在上海朝鮮人策動	범죄사고	화태	東亞日報
19281007	2	和平은내家庭을破壞한 두親友를自手로慘殺하고서 異域萬里 樺太의눈별판을해매든 運命兒= 甘判同 의一回公判	범죄사고	화태	朝鮮日報
19281012	1	寒冷은加한다 災民은安住오	의연금	화태	東亞日報
19281025	2	七百朝鮮勞働者 樺太에서重大計劃 사실의진부는 아즉불명 小山警察部長急行	범죄사고	나요시군	東亞日報
19281025	2	朝鮮人七百名の 重大計劃이露顯 상해에잇는□자가 테포되어 경찰부장이부하를대리고출등 樺太警察活 動開始	범죄사고	나요시군	中外日報
19281025	2	七百名朝鮮勞働者 樺太島서赤化를計畫 화태도에 중대한음모사건이났다고 上海서同志被逮로發覺	범죄사고	나요시군	每日申報
19281025	2	七百名의鮮人樺太で○○陰謀を企て發覺	범죄사고	나요시군	朝鮮新聞
19281025	2	北樺太七百朝鮮人 ○○의重大陰謀 획책중심디는 혜수취 赤化分子가上海와聯絡	범죄사고	나요시군	朝鮮日報
19281102	5	樺太廳の 警戒嚴重 鮮人逮捕	범죄사고	시스카 나요시군	朝鮮新聞
19281103	2	樺太警視廳 突然大活動 동경경시청급던을맞고 朝鮮 人六名을檢舉	범죄사고	시스카 나요시군	東亞日報
19281103	2	義烈團嫌疑로 樺太서도檢舉 화태의국경을넘어와 잡 힌朝鮮人八名	범죄사고	시스카 나요시군	朝鮮日報
19281109	5	樺太在留勞働同胞 血誠잇는同情金 관북리재동포를 위하야 【分錢모아百卅六圓五十錢】	의연금	모토도마리군	東亞日報
19290223	5	關北水害救濟 自進同情金	의연금	우시로군	東亞日報
19290602	3	樺太大火災에 罹災同胞二千 벌목로동에종사하든 이들 生路社絶로大慘境	재해	나요시군	東亞日報

19290602	2	樺太罹災者四千人中 二千人은鮮人 판명된손해총액 륙백만원	재해	나요시군	毎日申報
19290602	2	樺太罹災の朝鮮人 この際歸鮮せしめる	재해	나요시군	朝鮮新聞
19290602	2	樺太大火災에 朝鮮人罹災者二千 관헌은그들을조 선으로돌려보낼계획 被害總額이六百萬圓	재해	나요시군	朝鮮日報
19290603	1	横説堅説	재해	화태	東亞日報
19290603	2	樺太의山火 依然延燒中 방금도맹렬히타는중이라 念 慮되는同胞安危	재해	화태	朝鮮日報
19290603	1	八面鋒	재해	화태	朝鮮日報
19290604	2	樺太島大火 延燒四十餘里 궁금한재류동포의소식 火 勢는아즉熾烈	재해	도요하라군	東亞日報
19290607	2	赤露密航靑年 잡혀서취도중	범죄사고	화태	朝鮮日報
19290608	1	社説 同胞愛에만 哀訴	재해	화태	朝鮮日報
19291030	6	極東露領에移住한 朝鮮同胞의現況(六) 蘇聯邦의移 民政策	정책	북화태	朝鮮日報
19291114	7	關北水害救濟 同情金決算 一月以後自進同情金	의연금	나요시군	東亞日報
19291123	4	應接室	이동	화태	東亞日報
19300204	6	應接室 應接子 晩學塔	범죄사고	화태	東亞日報
19300304	2	十四歲에出家 統義府에加入 이발사 노릇하며동지규 합 主犯趙仁賢의經歷	범죄사 고	화태	東亞日報
19300517	2	救濟事業期도지나 失業同胞又益悲慘 사흘에하로식 벌어먹든것도꼇나 이제는그일부가북해화태로류리 關西勞働同胞慘狀	이동	화태	朝鮮日報
19300520	2	失業地獄脫出코지歸國同胞益激増 작년에는도항초 과가일만팔십삼인이나 금년에는사월에만천구십오 인입국초과 大阪港頭の白衣群	이동	화태	朝鮮日報
19301109	4	本社關係一束	기타	모토도마리군	東亞日報
19301130	2	樺太在留同胞 水害義捐 本社로托送	의연금	나요시군	毎日申報
19301224	2	樺太に飢える 朝鮮人勞働者 各地へ救濟運動	동정	도요하라군	朝鮮新聞
19310609	3	渡日六萬勞働者中 萬餘名失業彷徨 일본간 로동자 일 자리 못어더 慶北道警察部調査	통계	화태	東亞日報
19310610	6	慶北原籍의 渡航同胞數 六萬三千餘人	통계	화태	毎日申報
19310721	3	父を尋ねて 樺太から	기타	도요하라군	朝鮮新聞
19310902	3	東部亞細亞紀行(三)	동정	도요하라군	朝鮮日報
19320123	6	在滿避亂同胞 慰護金品還至 本社에依頼한것	의연금	나요시군	東亞日報
19320214	2	樺太地方移住同胞 現在에는萬餘名 생활은비교적안 정된편 内地連絡업서孤寂	동정	화태	朝鮮日報
19320308	6	決算後에接收한 在滿同胞慰護金品	의연금	모토도마리군	東亞日報
19320407	6	決算後에接收한 在滿同胞慰護金品	의연금	나요시군	東亞日報
19320610	6	決算後에接收한 在滿同胞慰護金品	의연금	모토도마리군	東亞日報
19320929	3	樺太から來た 失職の夫婦 平壤署で救はる	기타	모토도마리군	朝鮮新聞
19321014	6	太平洋沿岸地方 産業界巡訪 (八)	동정	오도마리군	東亞日報

19321022	5	樺太訪問記 (3)	통계	화태	東亞日報
19321026	5	樺太訪問記 (4)	동정	시스카군	東亞日報
19321115	5	樺太訪問記 (17)	이동	시스카군	東亞日報
19321116	5	樺太訪問記 (18)	동정	시스카군	東亞日報
19321117	5	樺太訪問記 (19)	동정	화태	東亞日報
19321119	5	樺太訪問記 (21)	동정	오도마리군	東亞日報
19321202	3	異域에 팔려가는少女 毎月百餘名을超過 大阪、北海道、臺灣等地로 안주의길은어대?	범죄사고	화태	東亞日報
19331122	2	勞働市場에輸出된三十一萬在留同胞 最近調査日本在留同胞數 渡航不自由로不増	통계	화태	朝鮮日報
19331229	2	失踪廿一年만에 富者가되어再現	기타	도요하라군	東亞日報
19340220	5	樺太에서移入한 阿片密賣團檢舉 秘密賣買中大邱署에檢舉	범죄사고	도요하라군	毎日申報
19340822	2	萬里北海저편의 樺太島勞働同胞 어려운살림사리에 서모은돈 四十餘圓收合寄託	의연금	모토도마리군	朝鮮日報
19340822	3	三南水害義捐金品	의연금	모토도마리군	朝鮮日報
19340824	2	樺太同胞도 救濟金各地水害義金品還至	의연금	혼토군	朝鮮中央
19350503	2	北海大林을根據로 大量魔藥密賣團 樺太에서鶯栗栽培各地에供給 蜘蛛網가튼連絡網	범죄사고	모토도마리군	朝鮮日報
19361003	3	마금한뒤에도 救濟金品還至 二日午後本社寄託分	의연금	나요시군	朝鮮日報
19361101	8	社會事業協會收合 水害義捐金	의연금	나요시군	朝鮮日報
19361106	8	社會事業協會收合 水害義捐金	의연금	모토도마리군	朝鮮日報
19361119	8	社會事業協會收合 水害義捐金	의연금	화태	朝鮮日報
19361205	4	社會事業協會收合 水害義捐金	의연금	나요시군	朝鮮日報
19371007	2(조식)	時局認識의小冊 五十萬卷發刊 總督府서萬餘圓經費로	기타	화태	東亞日報
19380122	3	蘇聯에不法拿捕된 同胞五十名多數 그외에내지동포도二十四명 全部理由업시服役中	기타	북화태	毎日申報
19380302	2	樺太에가있는 半島女性의丹誠	미담	사카에하마군	毎日申報
19380302	2	樺太居住의 半島婦人의活動	미담	사카에하마군	朝鮮日報
19380303	2	樺太島在住 朝鮮婦人活動	미담	사카에하마군	東亞日報
19380303	2	붓방아	미담	화태	毎日申報
19380328	2	“朝鮮人에對한壓迫 갈수록甚해질뿐 하바롭스크에선十餘名銃殺” 蘇聯을脫出한金某의目擊 談	동정	북화태	朝鮮日報
19380401	3	繼續되는蘇聯의暴舉 朝鮮人十餘名銃殺 재주동포의 불안은날이갈수록심각 既得權益까지도憂慮할狀態	기타	북화태	毎日申報
19380504	1	總動員法一部發動 朝鮮에도施行	정책	화태	東亞日報
19380504	1	國家總動員法의一部 朝鮮에도施行決定 明四日官報로서二勅令公布 五日内地實施를機會로	정책	화태	毎日新報
19380505	1(조식)	總動員關係勅令 四日公布	정책	화태	東亞日報
19381029	1(식)	特殊勞働者 募集制 廿八日官報로公布	정책	화태	毎日新報
19381213	1(조식)	年内歸還困難 北樺太石油社員	기타	북화태	東亞日報

19381213	2	北樺太石油社員은 年内歸還困難視 蘇聯의態度가豹變	기타	북화태	每日新報
19390104	6	朝鮮의農民·勞働者는 大陸開拓의先發隊	통계	화태	東亞日報
19390526	2(조선)	三十萬朝鮮勞働者의 大量渡航을認定할듯	정책	화태	東亞日報
19390927	2	朝鮮 勞働者渡航問題 大量供給기로결정決定 内地側 幹旋申請相當數에到達	정책	화태	朝鮮日報
19390930	3	樺太北海道九州 各炭鑛に從業 渡航勞働者許可	정책	화태	朝鮮時報
19391014	3	樺太行勞働者 安城署에서幹旋	정책	화태	每日新報
19391026	2	旱害救濟義捐 樺太炭坑 朝鮮人들發奮 本社에義捐金 寄託	의연금	나요시군	朝鮮日報
19391115	3	樺太開拓勤勞隊들 安城서勇躍出發 官民多數歡送裡에	정책	화태	每日新報
19391122	2	旱害救濟義捐	의연금	모토도마리군	朝鮮日報
19391220	3	朝鮮勞働者를부른다 樺太鑛山에서條件도조케!	정책	화태	每日新報
19391220	2	朝鮮勞働者 五千餘名 樺太鑛業서直接募集	정책	화태	朝鮮日報
19391223	3(조선)	樺太行勞働者 順天서多數出發	이동	화태	東亞日報
19400107	3	樺太에서送金 安城勤勞報國團	기타	화태	朝鮮日報
19400203	4	忠北에勞働景氣 各地의幹旋依賴數 四月까지六千餘名	정책	화태	每日新報
19400204	2	旱害救濟義捐	의연금	시스카군	朝鮮日報
19400206	6	樺太等地의石炭増産 朝鮮과의關係深重	정책	화태	每日新報
19400327	2(조선)	渡航勞働者를指導 來月五日에關釜連絡會議	정책	화태	東亞日報
19400403	2(조선)	渡航問題싸고 連絡船會議開催 警務局長以下出席	정책	화태	東亞日報
19400405	2	朝鮮人勞働者渡航과 待遇改善策을協議 三橋警務局長以下各省各府縣關係者出席 今日,釜山서渡航問題大評定	정책	화태	東亞日報
19400410	2(조선)	朝鮮勞働者를禮讚 今後多量으로幹旋	미담	화태	東亞日報
19400427	6	樺太炭組朝鮮移入 目下準備行中	정책	화태	每日新報
19400509	2	炭坑에瓦斯燃焼로 死傷者五十一名 樺太島塔路炭鑛의慘事	동정	나요시군	朝鮮日報
19410213	3	波蘭의放浪中에 九歲兒가白髮로 樺太서온 金玉均氏 遺子訪問記	기타	사카에하마군	每日新報
19410214	3	平生에感激되는 慈親의最後一言 樺太서온 金玉均氏 遺子訪問記	기타	사카에하마군	每日新報
19410720	12	半島よがんばれ 日本一少ない貯金	기타	화태	國民新報
19420924	2	銃後奉公에感激 樺太있는半島勞務者들	미담	화태	每日新報
19440806	3	半島勞務者定着 樺太서指導委員會	정책	화태	每日新報

 <要旨>

화태 이주 조선인에 관한 신문기사의 정량적 분석

이준영

본고는 1920년부터 1945년에 걸쳐 조선에서 발행된 신문에서 수집한 조선인의 화태 이주와 화태에서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기사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그동안 화태 이주 조선인(사할린한인)에 관한 연구는 조선인을 통제 대상으로서 작성된 화태청 행정자료나 경찰자료를 중심으로 검토된 경향이 있다. 그리고 1939년부터 1945년에 걸쳐 일본에 의한 조선인 강제징용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본고에서는 신문기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화태와 조선인에 관한 기사를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신문기사 데이터베이스에서 화태에 관한 기사를 수집하고, 그중에서 조선인의 화태 이주와 사회적 활동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선별한다. 그리고 기사에서 다루는 키워드별로 구분하여 각각 정량적으로 분석을 수행한다. 이 작업을 통해 화태 이주 조선인에 관한 기사를 다룬 자료군의 사료적 자료로서의 가치를 검토함으로써 2021년에 시행된 사할린동포법을 통해 추진될 연구·학술활동의 지원 사업 및 관련 연구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Quantitative Analysis of Newspaper Articles on Sakhalin Korean

Lee, Jun-Young

This study examined the migration of Koreans to Sakhalin and the social activities of Sakhalin in the 1920s and 1940s using Korean newspaper articles.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the administrative and police materials of the Karafuto Agency(Karafuto-Cho), which were created to control Koreans. These studies have studied the forced mobilization of Koreans from 1939 to 1945. In this paper, articles about Sakhalin and Koreans are analyzed quantitatively using a newspaper article database. Specifically, after investigating the articles on Sakhalin, select the articles on the emigration and social activities of Koreans. Then, the article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s and analyzed quantitatively. This analysis is meaningful by examining the historical value of the data group of newspaper articles about Koreans who immigrated to Sakhalin.